

-기 일쑤이다

잘은 나쁜 습관 — 걸핏하면 ~하다, 늘 ~하기 일쑤다

되풀이되는 나쁜 버릇을 나타냅니다. -기 십상이다처럼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, 이미 굳어진 패턴을 묘사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기 일쑤이다	늦다 → 늦기 일쑤예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기 일쑤이다	만들기 일쑤였다
과거	이다에 시제 표시	늦기 일쑤였어요
조건	반복적이고 달갑지 않은 일	한 번뿐인 일, 좋은 습관은 불 가
띄어쓰기	일쑤는 명사	늦기 일쑤이다
중립적인 습관	-곤 하다	가곤 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기 일쑤이다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일쑤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그 일은 반복적이면서 달갑지 않은 일: 그는 약속에 늦기 일쑤였다. 이어야 합니다. 한 번뿐인 일이나 좋은 습관에는 쓰지 않습니다.

과거는 이다에 나타냅니다: 늦기 일쑤였어요. 앞의 -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.

중립적인 습관을 말하는 -곤 하다와 비교하면 일쑤이다에는 못마땅함이 더해집니다. 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경고하는 십상이다와 달리, 이 표현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합니다.

■ 예문

- 1 그는 약속 시간에 늦기 일쑤였다.
- 2 서두르다 보면 물건을 두고 오기 일쑤예요.
- 3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.
- 4 밤늦게 먹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기 일쑤였어요.
- 5 급하게 만들기 일쑤라 품질이 들쭉날쭉했다.
- 6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기 일쑤예요.

■ 비교

-기 십상이다
십상이다는 일어나기 쉬운 일을 예측하고, 일쑤이다는 이미 되풀이되는 일을 전합니다. 경고와 불평의 차이입니다.

서두르면 실수하기 십상이예요. (실수하기 쉽다) / 실수하기 일쑤였어요. (걸
핏하면 실수했다)

-곤 하다
-곤 하다는 중든 나쁜 습관을 중립적으로 전합니다. 일쑤이다는 불평
할 만한 습관에만 씁니다.

주말엔 산책하곤 했어요. (산책하곤 했다) / 늦기 일쑤였어요. (늘 늦었다)

-기 마련이다
마련이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, 일쑤이다는 한 사람의 되풀이되는
결점을 묘사합니다.

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예요. (누구나 실수한다) / 그는 실수하기 일쑤였다.
(그는 걸핏하면 실수했다)

■ 주의

- ✗ 어제 약속에 늦기 일쑤였어요.
- 어제 약속에 늦었어요.
- 일쑤이다는 반복되는 패턴을 나타냅니다. 한 번 있었던 일은 그냥 과거형으로 씁니다.
- ✗ 그는 일찍 오기 일쑤였다.
- 그는 일찍 오곤 했다.
- 일쑤이다에는 못마땅함이 담깁니다.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습관에는 -곤 하다
가 알맞습니다.
- ✗ 그는 약속에 늦었기 일쑤였다.
- 그는 약속에 늦기 일쑤였다.
- 기에는 절대 시제가 붙지 않습니다. 과거는 이다에 붙입니다.